

Hana Market Weekly

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외환파생상품영업부

2024. 12. 30

주간 달러/원 동향(12/23~12/27) 및 전망



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미 PCE물가 둔화에 달러 약세 나타났으나 수입업체 결제수요 유입되며 환율은 소폭 상승. 이어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제한적인 가운데 수급상 매수 우위 영향에 추가 상승
- 후반, 탄핵 정국에 대한 우려로 원화의 약세 압력이 커지면서 1,460원대에 진입. 이어 주 후반,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등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며 장중 1,480원선을 돌파했으나, 당국의 시장안정 의지에 상승폭을 축소하며 1460원대 후반에서 마감

달러/원 전망

-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원화 약세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며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전망. 또한, 미국과 그 외 주요국간 통화정책 기조 차별화에 달러 강세와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상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
- 다만, 단기 고점 인식에 따른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가능성과 국민연금 환헤지 물량 출회 경계감 등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안정 의지 등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,446.0	1,486.7	1,445.4	1,467.5	+21.5

예상거래범위
1,460원 ~ 1,490원

엔·유로화 동향 (12/23~12/27)



유로화 동향

- 주초,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라가르드 ECB 총재의 발언에 완화적 정책 기조가 부각되며 유로화는 약세 출발. 이어 연준과 ECB간 금리인하 속도 차별화 전망을 반영하며 추가 약세를 보임
- 후반, 유럽 주요 금융시장이 박싱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강달러 흐름에 약세 지속. 이어 주 후반, 유로존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인한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을 언급한 ECB 주요 인사의 발언에 소폭 반등 후 1.04달러대에서 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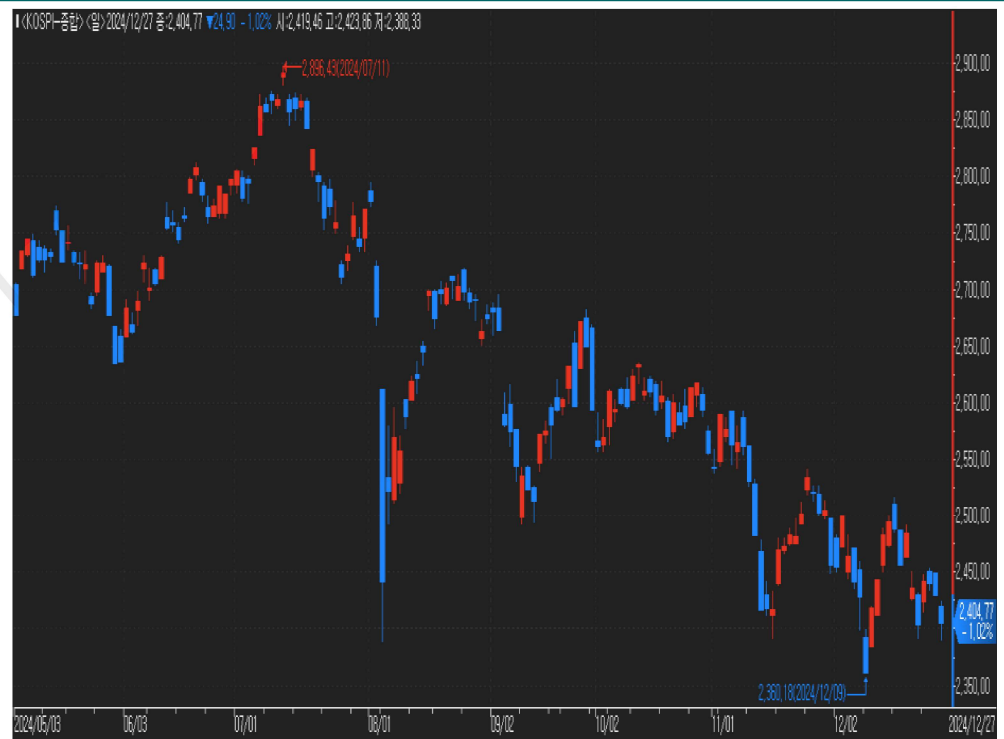
엔화 동향

- 주초, 연준의 매파적 금리인하 여파 속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엔화는 약세 출발. 이어 일본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추가 약세폭은 제한적인 국면
- 후반,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 완화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우에다 BOJ 총재의 발언에도 약세 흐름이 지속. 이어 주 후반, BOJ의 금리인상 관련 신중한 스탠스와 일 재무상의 구두개입 등에 약세 압력이 다소 완화되면서 157엔대에서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0429	1.0447	1.0384	1.0426	-0.0003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56.4	158.1	156.3	157.9	+1.5

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12/23~12/27)

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주초, 미국 11월 근원 PCE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.1% 오르는데 그치며 시장 예상을 하회한 영향 속에 한은이 자금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영향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. 이어 성탄절을 앞두고 전일 미 국채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며 상승 흐름 전환된 가운데,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압력 등으로 상승 탄력 배가 양상
- 후반 들어,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와 이에 따른 야당의 권한 대행 탄핵안 발의 등 국정 불확실성 확대에 국고채 시장 약세 압력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지속 등 수급 악화 요인 지속 등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추세 지속 후, 주 후반,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국 불안에도 국고채 시장 영향 제한된 가운데 국내 기관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전환하며 마감

주간 증시 동향

- 주초, 전주 후반 미 11월 PCE 가격지수가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의 저가 매수세 유입에 코스피는 큰 폭 상승 흐름 속에 출발. 이어 특이 이슈 부재한 가운데 미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환경 지속이 지수 상단을 제약하며 소폭 하락 전환 국면 시현
- 후반 들어, 외환시장에서 달러/원 환율 1,460원대 상승 및 정치 갈등 이슈가 증폭한 영향 등이 투자심리 위축을 견인하며 코스피 하방 압력을 확대한 국면. 이후 주 후반, 권한 대행 탄핵 이슈 등 정치 리스크 관련 요인이 극대화 하며 원화 환율 1,480원대 진입 등에 따라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하는 국면을 보이면서 외국인 순매도 속 하락 추세 이어지며 간신히 2,400선을 방어한 국면 시현하며 마감